

‘서창 오미습지’에 철새가 돌아왔다



광주환경공단이 영산강 일원 ‘서창 오미습지’에 제2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지난해부터 1일 5만t으로 늘려 습지 기능이 정상화됐다.

환경공단 하수처리장 배관 확대 1일 물 공급 3000t→5만t 늘려 수질 개선·습지 생명체 다양화

사실상 생태 능력을 상실했던 ‘서창 오미습지’가 되살아났다. 광주환경공단 제2하수처리장(광산구 본덕동)이 영산강 일원에 조성된 ‘서창 오미습지’ 재생에 성공해 습지 기능 정상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생태 환경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2하수처리장은 영산강 일대에 형성된 생태 수변공원인 ‘서창 오미습지(8000㎡·

2420평)’가 본래 습지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서창 오미습지는 빗물과 소량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의지해 왔으나 모래로 구성된 하천둔치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공급되는 배관 주변만 정상적인 습지 기능을 발휘할 뿐 다른 곳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에 제2하수처리장은 습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충분한 방류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끝에 처리장과 습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급 배관을 설치했다. 덕분에 하수처리장에서 1일 3000t의 물

을 습지에 공급하던 것을 작년 하반기 5만t까지 늘려 공급했으며, 그 결과 되살아난 습지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습지에 터를 잡은 수생식물과 풀, 꽃 등을 거치며 보다 깨끗해진 방류수가 영산강 본류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습지가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자연자원의 보고로 거듭나면서 겨울철 철새의 낙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습지의 본질인 ‘물’에 주목해 습지를 재생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 “시민들도 되살아난 서창 오미습지를 방문해도 도심 속에서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내달 15일까지 ‘나무시장’

광주시는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꽃과 나무를 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15일까지 ‘봄철 나무시장’이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나무시장과 호남조경수 유통센터, 북구 순정화훼단지 등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상시 판매장도 열려 다양한 나무와 꽃을 시종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나무시장 및 꽃 상시 판매장 연락처는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1-0071) ▲호남조경수 유통센터 (062-374-8898) ▲북구 순정화훼단지 (062-266-4463) 등이다. 나무시장에서는 꽃삽, 호미, 친환경비료 등 조경 자재도 판매하고, 묘목과 꽃 심는 요령 등 기술지도도 받을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분수·연못 등 수경시설 설치 신고 의무화

이제 인공 폭포나 연못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모두 설치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오는 7월 28일까지 관련 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 시설물 중 일반에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설치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고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광주시 생태수질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공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검사와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는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을 추가해 총 4개 항목으로 검사하게 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는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되며, 새로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하루 1회 이상), 소독의무 등이 추가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드 사태에도...광주-중국 “영원한 이웃”

연대와 협력의 공간 될

‘차이니스 코너’ 설치키로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지역의 대 중국 장구 역할을 할 ‘차이니스 코너’를 설치한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쑤시엔위 주 광주 중국총영사는 9일 면담을 갖고 광주와 중국간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이니스 코너를 광주와 중국 간 연대와 협력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으며, 쑤시엔위 총영사는 “차이니스 코너가 설치되면 중국 대표단 등이 왔을 때 방문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 차이니스 코너 설치를 총영사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이니스 코너는 광주 아메리칸 코너와 비슷한 성격으로 한국인에게 중국을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 중국어 교육부터 초등학생 교류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문화원 본원의 성격을 따지만 중국 측이 ‘1국 1문화원’ 원칙을 밝힘에 따라 차이니스 코너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장소와 운영 인력 등은 광주시가



윤장현 광주시장(왼쪽)과 쑤시엔위 주 광주 중국총영사가 차이니스 코너의 후보지 중 하나인 사직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제공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 등 콘텐츠는 중국 측이 맡게 된다.

광주시는 애초 사직도서관을 유력한 후보지로 고려했으나 최근 현장 방문 후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사직도서관을 포함해 리모넬리이 진행 중인 전일빌딩 등 다수의 장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광주시가 지난해 개최한 광주청와포럼, 지난 1월 중국 EV포럼 참석 등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총영사

관에서 광주시의 차이니스 코너를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쑤시엔위 총영사는 “광주시의 차이니스 코너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며 ‘세상은 바뀌어도 이웃은 바뀌지 않는다’는 시장님의 철학을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쑤시엔위 총영사는 “광주의 중국 관련 사업과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여성장애인 상담·일자리 교육 동시에

광주복지재단 산하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미란)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에 선정된 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와 여성이란 이중적요소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모든 사

회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여성 생애주기별 고충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심리상담프로그램, 여성폭력 대처교육, 도자기 교실, 합창단교실, 생활체육(세라밴드, 스트레칭 교실), 선물 포장공예 전문가교실 등 여성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직업재활교육을 연계해 여성장애인이 당당히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관 관계자는 “신체, 환경적 요인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www.kjw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장애여성 교육지원 담당자(070-4372-2918)를 통해 가능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행복한 목수들, 올해는 공부방도 만듭니다

내달부터 저소득층 주택 수리

광주시는 올해도 ‘행복한 목수 봉사단’과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집을 무료로 수리를 해준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독거노인,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 ‘행복

한 목수 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40가구를 목표로 이달부터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에서 집수리 대상자를 추천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4월부터 집수리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등 요보호 아동을 위한 공부방만들기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복한 목수 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윤

장현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자재비 등은 시비로 지원하고 ‘행복한 목수 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윤장현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광주시는 민간과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매가 1억1천만

010-7384-7800

동구 수기동 상가 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차 완비

▶매가 1억4천 (웅 5천)

062-527-7600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걸림)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사창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062-527-76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료 30개 (달방수의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